

부처님오신날  
불자 세상보기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前 사회통합위원장

“웃고 나가더니 왜 이렇게 돌아왔니. 추웠지? 무서웠지? 엄마한테 와”  
엄마의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말이다. 아이는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뻐 했을까. 그런데 이제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온 아이를 보았을 때 엄마는 그저 가슴에 안고 싶은 모습 뿐이었다. 이제 눈물도 말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내 자식의 일이며 나의 일이다.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한숨만 쉬어지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이만 먹은 사람의 미안함일까? 정말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준 것이 정말 미안하다.  
천재라면 모르지만 일정한 인제가 있지 않는가? 우선 바다를 잘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박의 선원들이 승객을 남겨두고 그들만이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타고 생존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에, 같은 나이먹은 어른으로서 마치 내가 저지른 일 같이 가슴이 미어지는 참괴감을 느낀다. 우리세대의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의 도덕의식과 책임감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나 자신이 비굴해 진다.  
우리세대는 2차전쟁을 겪었고 6.25를 경험했다. 그리고 월남전쟁도 참전했

아픔 딛고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자

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100% 행복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가도 세계 10대 무역국가의 하나가 되었고 G20에 드는 나라다. 국민 일인당 소득도 15,000달러를 넘어 30,000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IT 강국이고 자동차 수출 세계에서 다섯번째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선진국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가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도 존립하고 국가, 사회 모든 제도와 안전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늬만 선진국형이지 내용은 너무 공허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참담과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그저 국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웃을 탓할것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꼼꼼히 절실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900회 이상의 외침을 받아 왔지만 그 외침을 극복하고 살아남 민족이다. 근세만 하더라도 일제식민지를 이겨내고, 냉전의 이념의 울타리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외세에 의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 아직도 전쟁중인 휴전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4.19, 5.16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쳤다. 5.16이후 민족 중흥이라는 기치하에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해 산업화를 시작했다. 그 산업화기에 전 국민이 열심이 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고, 민주화 열망세

력과 산업화 세력간에 부단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민족자본이 없었던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부정부패와 배금주의 사상이 뿌리 내렸고 핵가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일부 상실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세력은 독재세력과 결탁되고 민주화 세력은 민중과 인권 세력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다. 계층, 이념, 세대, 지역의 갈등은 국가발전의 큰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로 금권만능주의 팽배  
세월호 선주, 산업독재 수혜자  
무너진 가치관 바로 세워야

우리국민은 무엇을 보고 살았던가? 산업화 독재 시대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보았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들을 처벌하였으나, 경제발전의 기여를 잠작하여 국가에 재산 일부를 헌납하고 돈도 풀려 나왔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어떤 모든죄도 용서 받는다는 배금주의가 싹트고 그 배금주의는 금권만능주의로 전환되었다. 국민 의식의 주체가 민주화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중심 인간가치의 인격과 자존심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 가치인 생명존엄과 평등, 자기자존은 금권앞에 무력해 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오늘과 같은 참사를

초래했다.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가 바로 산업화 독재 시대의 대표적인 금권주의 대부로서 다시 태어나 그러한 의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결국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시대의 모든 부정적 잔재가 사라지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여진다.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양은 22살의 나이로 어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희생하였다.  
또 16일 사고당일 진도군 조도면 청년회장 정순모 씨는 청년회원들에 전화와 문자를 날려 어린 100여명과 40여척의 배로 바다에 떠 있는 학생들을 구했다. 또 단원고 2학년 담임 남윤철 교사는 기우는 선실 비상구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선실 밑으로 내려가 제자를 데려오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박호진 군은 쓰러진 자판기에 끼여 있던 다섯살 여자아이를 안고 나와 아이부터 구명보트에 던졌다. 그것뿐이라. 희생자 또래들은 전국적으로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10,000명도 넘게 모여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차제에 대한민국의 불을 다시 켜는 기회로 삼고, 국민들도 자책과 망연자실만 할 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치관 기본의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그 법을 구현하는 국민으로, 법 앞에 바보가 되는 국민으로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구조자들의 쾌유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빈다. 나무아미타불

社說

세월호 슬픔 나는 '동체대비' 연등회

지난 4월 26·27일 양일간 열린 연등축제는 과거와 달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때문이었다. 이웃의 아픔을 깨어나라는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처럼 세월호 여객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발원으로 담겨졌다.  
서울 동국대운동장서 4월 26일 열린 어울림마당(연등법회) 식전행사는 희생자들을 위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진, 실종자들의 생황을 기원하는 축원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연등법회에서는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버리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원하자는 발원문도 발표했다.  
연등법회의 하일라이프였던 동대문서 종각사거리까지 행진하는 연등행진 역시 추모 분위기가 일색이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커다란 흰색 장엄등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적색 장엄등을 필두로 300여 스님들이 백색등을 들고 행진했다.  
매년 보였던 흥겨운 풍물과 화려한 음악 사용은 금지됐다. 장엄등에도 추모의 상징으로 백색등을 추가 했다.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진을 하며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 행진을 했다. 희생자를 위한 성금모금과 가슴에 추모리본도 착용했다.  
봉축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22호 전통문화 행사이지만 불자와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원의 장으로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연등회로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것이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오신 동체대비의 구현인 것이다. 우리 불교계도 이번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동체대비다.

비리의혹 종교집단은 '성역'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연(73) 前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실 경영과 부정 축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前 회장 일가의 재산은 국내계열사와 해외 법인, 부동산을 포함해 약 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前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의 목사로 '오대양 자살 사건' 배후로 지목받았던 인물이다. 유씨 일가는 지금도 구원파에게서 물심양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원파 교회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특정인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유 前 회장이 이끄는 구원파를 개신교 측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원파는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前 회장은 교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강 식품을 판매하고 유령 회사

를 통해 공금을 유용했다.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민음을 이용해 후세무민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다. 1900년 평안남도 영변에서 전정운이 세운 백백교는 "동해에 신선의 땅이 새로 생기고 그곳에서 불로장생하게 해주겠다"고 설교하며 신도를 모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반대 신도들을 살해한 후 숨었고 여인 60명을 거느리고 방랑한 생활을 하다 병으로 죽었다. 교주와 측근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만 450여 명이 넘는 회대의 살인 집단이다.  
유 前 회장은 "나의 사업이 곧 하나님의 사업이다"며 신도들의 돈을 모아 거액을 갈취한 전과가 있다. 국어사전은 사이비를 '비슷한 듯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을 비통하게 한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유회장 일가와 종교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종교 집단이라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SNS는 지금

세월호 아픔 함께 하는 연등회

불기 2558년 연등회 연등축제가 숙연하고 경건하게 회향됐다. 올해 연등회는 축제보다는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하얀 연등, 노란 리본... 국민의 마음입니다

행진하는 분들의 연등엔 극락왕생, 무사귀환 등의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트위터 @179HUNee>  
어머니와 저녁 먹고 나왔는데 연등행 사해요. 이번 세월호 사건 추모와 함께 해서 대부분이 흰색 연등과 노란색 연등, 노란리본. <트위터 @akabebey>  
연등회 보세요. 눈물납니다. <트위터 @kumazaki48>

하얀 연등, 손에는 노란 리본. 순간 울음이 울겨 나왔다. <트위터 @lie\_feeling>  
끝없는 추모 인파. 이것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트위터 @kgly72>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늘 오후 열린 연등회는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천도의식과 추모제를 중심으로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트위터 @Godblf>

오늘이 연등행렬이었구나. 축제같은 예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아아... <트위터 @k\_aquinas>  
연등회. 깃발마다 글귀가 적혀있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무심코 읽다가 너무 아렸다. 연등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었다. <트위터 @dalcomsweet00>  
연등회. 순간순간 관이 눈가가 시큰했다. 연등도 사람도 아름다웠다. <트위터 @luxiyue>



<b>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b>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8年 甲午年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Buddha's birthday

원로원장 성해 고시원장 태운  
중앙총회법규위원장 지호 법규위원 상경, 도명, 해천, 상우  
원로위원 금봉, 법성, 진덕, 옥운,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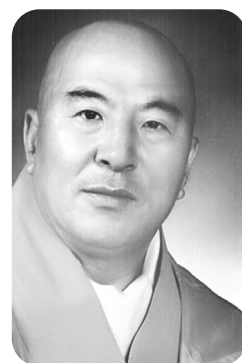
총무부장 능인 규정부장 상도 사회부장 상천 재무부장 상화  
총무국장 상일 교육부장 선법

서울총무원장 진산 충북총무원장 대원 전북총무원장 운학  
부산총무원장 상도 전남광주총무원장 선법 경기인천총무원장 진성  
대전총무원장 일륜 경남총무원장 상정 울산총무원장 각초  
제주총무원장 법운 강원총무원장 능인

비구니 회장 명관 부회장 상진, 해진

임시총정 겸 총무원장 향운 종정 무진 대종사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정 겸 총무원장  
향운

스스로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지향도 찾을 수 없었던 증생들은 부처님께서 설교하신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자 목표인 세상 삼라만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또한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커다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불자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옵고,  
실종자 전원 무사생환을 기원합니다.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선필로 122 대한불교원효종  
전화 052)262-6857